

시민들의 삶 속에 전주정신 뿌리 깊게

전주시, '꽃심 교실' · '꽃심 전주 한마당' 등 전개

포토존 · 색칠대회 이벤트 등 시민참여 기회 확대

전주시가 시민들의 삶 속에, 전주정신인 '꽃심'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가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정신인 '한국의 꽃심 전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11월 △전주정신 꽃심 컬러링 색칠대회 △전주정신 꽃심 컬러링북 제작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가 지난 2016년 시민들과 함께 섰던 전주정신인 '한국의 꽃심, 전주'는 전주시민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대동·풍류·울골음·창신 4개의 정신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정신으로, 故 최명희 작가가 '혼불'에서 쓴 것처럼 '꽃의 심, 꽃의 힘, 꽃의

마음'으로 짝을 띄워내는 강인한 힘을 뜻한다. 전주정신에는 전주가 모두 함께, 멋과 울골음으로 새로운 문화와 세상을 창출해간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아름다운 전주의 풍경과 문화자원에 전주정신의 주제와 의미를 담아 '전주정신 꽃심 컬러링북'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시는 컬러링 북을 시민들과 함께 제작하기 위해 오는 11월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름다운 전주의 모습에 내만의 감성으로 색을 입혀보는 대국민 이벤트인 '2019 꽃심 전주 컬러링 색칠대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색칠대회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10종의 꽃심 컬러링 그림 중 1개를 선택해 응모하

면 된다. 시는 우수작 30명과 참가자 180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시는 오는 11월1일 전주역 사발들관에서 전주정신 꽃심의 논리적·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전주정신의 가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2019 전주정신 포럼 '인물로 본 전주정신-꽃심'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주정신을 바탕으로 과거 전주에서 살아온 인물들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조망하고, 그들의 삶에 담긴 전주정신을 확인해볼 수 있다.

박재열 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전주는 역사적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도시이며, 새로운 문화와 세상을 열어가려는 꽃심의 도시"라며 "전주정신이 시민들의 삶 속에서 뿌리내리고, 모든 시민들이 전주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주정신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비상소집 실시

초기대응 능력 점검 등에 중점

전주시는 28일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의 일환으로 전 직원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일상생활 속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다양한 복합재난에 대비한 통합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올해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이날 비상소집훈련은 행정안전부 상황메시지를 통한 소집 훈련으로, 전주시 직원들의 응소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오전 8시에 불시 발령됐다. 특히 이날 훈련은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공직자들이 대응해 재난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초기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전주시는 이번 훈련 기간 전 직원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민방위훈련과 연계한 국민 참여 전국 지진대피 훈련 △건축물붕괴, 화재, 유해물



전주시는 28일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의 일환으로 전 직원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다.

질출음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피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영문 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공직자로서 직원들의 위

기상황에 대한 초동대응의 중요성과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재난상황을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익산경찰 '그루밍 성범죄' 신속 대응으로 해결 주목

익산경찰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그루밍(grooming) 수법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8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진행,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있다.

그루밍(grooming)은 가해자가 일정 기간 피해자와 만나며 신뢰를 구축, 성폭력 가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익산경찰청은 그루밍 성폭력 범죄를 전국 최초로 입증하며 여성 범죄 해결에 주력해 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중학교 교사가 5년 동안 제자를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교회의 목사를 검거하는 등 그루밍의 범죄 입증에 앞장서고 있다.

통상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으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입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익산경찰청은 피해자의 억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해 폭행과 협박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 친밀감 형성을 통해 범죄가 이뤄지는 그루밍을 범죄로 각인시키고 있다.

특히 범죄 입증에 공범위헌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뉴시스

환자 안전 · 의료 질 향상 장려

전북대병원, '2019 QI활동 경진대회' 성료
포스터발표 부문서 간호부 주사실 등 수상받아
구연발표 대상에 간호부 45 · 46 · 55 · 56 병동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장려하기 위한 '2019년 QI(Quality Improvement) 활동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QI활동 경진대회는 병원 내 의료질 향상 활동을 활성화하고 부서별로 진행한 의료질 향상 활동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지난 25일 병원 본관 지하 1층 모악홀에서 3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구연 발표 9팀, 포스터발표 11팀 등 총 20개 팀이 참가해 부서별 질 향상 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대회결과 포스터발표 부문에서 간호부 주사실(중심정맥관 관리 개선을 통한 안전보장 활동)과 영상의학과(일반영상 검사 시 차폐를 통한 환자의 피폭량 감소와 활동)가 각각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구연발표 부문에서는 대상에 간호부 45 · 46 · 55 · 56 병동(입원 시 환자관리 개선을 통한 내 · 외부 고객 만족도 향상)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간호부 52병동(주말 및 공휴일에 병동

에서 시행되는 외래 환자의 처치에 대한 체계적 관리)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간호부(린넨류 관리 개선 활동), 간호부 신경계중환자실(신경계중환자실 간호사의 학습조직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일터만들기), 영상의학과(영상검사 시 시정각자료를 통한 환자의 이해도와 만족도 향상활동) 등 3팀에게 돌아갔다.

수상팀 선정은 서류와 발표 심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서류심사에서는 문제의 개요와 핵심지표, 현황과목 및 원인 분석, 개선전략과 활동 및 효과 등이, 발표심사에서는 팀활동과 개선 노력 및 개선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조남천 병원장은 "환자중심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서별 우수사례를 공유해 우리 병원의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및 직원 12명은 28일 청주시의회를 방문해,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과 함께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대해 협의한 뒤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정보교류 · 지역 상생발전 도모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 전주시의회 방문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및 직원 12명은 28일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과 함께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대해 협의한 뒤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전주를 찾은 청주시의회 방문단은 티타임 후 전주시의회 시설을 둘러본 이후 전주시 사회경제적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및 원도심 마을계획 수립 사업 등 전주형 공동체 사업인 '온두레공동체' 사업현황을 듣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전주시도시혁신센터(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현황 설명 및 우수사례를 소개받았다.

박병술 의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양 시의회의 우호를 다지고 상호발전을 생각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이라며 "보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 타 시군 의회와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타시군 의회와 전주한옥마을 방문과 숙박을 추진하는 등 전주방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교육 통합지원 조직 구성 '공감대'

시, 야호교육 통합지원센터 구축 포럼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야호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주시가 교육청, 교육공동체와 함께 전주교육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조직 구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전주시는 28일 야호학교 덕진체육공간에서 시 관계자와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민간 교육공동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가칭)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는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적 · 물적 교육자원을 연계 ·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중간 전담조직으로, 향후 야호교육을 이끌어갈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행정과 교육관계자, 마을교육공동체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 학부모 등 일반시민들이 함께 전주형 창의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포럼에서는 전주시 '야호프로젝트 및 교육정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전주교육지원청의 '학교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중간

조직의 역할'에 대한 의견 발표 △경기도 오산시의 '오산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구축의 새로운 실험'을 주제로 한 사례 발표 등이 이어졌다.

또한 전주교육공유센터 추진위원회의 '전주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노력'을 주제로 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전주시는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전주교육지원청, 마을교육공동체 등과 함께 상호 협력하고 전주만의 특색이 있는 교육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다시 한번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면서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성장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 주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 마을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터도시를 만들기 위해 △숲 놀이터 △책 놀이터 △예술놀이터 △야호학교 △부모교육을 중심으로 한 야호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설공단, '교통약자 인식개선 교육'

이시콜 운전원 대상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정성환)은 이시콜센터 운전원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인식 제고와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통약자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은 주말인 지난 26일 전라북도 교통문화연구원에서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교통약자를 대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 차량 승차 시 배려를 위한 서비스, 특별교통수단 안전장치 사용법, 안전운전 및 교통관련법규 등에 관해 이뤄졌다.

2015년 운영을 시작한 이시콜센터는 장애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시콜 차량 45대를 운영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성환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통약자의 인격을 더욱 존중하고 서비스의 질 또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11월 12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전주시 35개 동 주민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축제 마당이 펼쳐진다.

전주시와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는 오는 11월 12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전주시 35개 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2019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각 동별 우수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상생들이 △합창 △난타 △드럼 △기타 △리인댄스 △우리 춤체조 등 20여 개로 구성된 끼와 재능을 마음껏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발표회에서 으뜸상을 차지한 평화2동 기타교실과 팔복동 기타교실의 여유롭고 수준 높은 초청 공연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35개 동 주민센터에서 현재 총 253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상생들은 단순 취미나 여가활동에서 벗어나 사회복합시설을 방문해 재능기부하거나 마을축제 등에 축하공연을 하는 등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해마다 35개 동 수상생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순위를 떠나 35개 동 모든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송천1동 동민들의 날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동장 신용남) 주민화합 추진위원회(위원장 서철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송천1동 학교 강당에서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19 송천1동 동민의 날 축제를 개최했다.

송천1동 초등학교 5학년 5명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화합한마당 행사에서는 난타공연과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주민들이 참여한 장기자랑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준비한 추진위원회 서철교 위원장은 "단순히 먹고 즐기는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했다"며, "주민들이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추억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삼천3동 어르신 생신상 차림

삼천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순철)에서 28일 생일을 맞은 독거노인을 방문,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신상을 차려드렸다고 밝혔다.

삼천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특화사업으로 일년에 한 번 생일을 찾아오는 이 없이 홀로 보낼 노인의 슬스런 마음을 위로하고, 짧지만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어르신 생신상 찾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정성스레 준비해 간 선물과 생일케이크, 제철과일 등을 전달하고, 생일축하 노래와 함께 어르신과 훈훈한 시간을 갖었다. /김윤상 기자